

은행금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부담 커

대출금리 평균 연 3.69%로 대기업 대출금리(3.14%)보다 0.55% 포인트 높아

지난해 은행권 대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 금리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실 대기업의 좌초로 은행들이 상당한 수익성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신용도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힘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금리 평균은 연 3.69%(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로 대기업 대출금리(3.14%)보다 0.55% 포인트 높았다.

이는 2007년(0.63%포인트)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지만 그 혜택이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015년 3.40%에서 지난해 3.14%로 0.26%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은 3.87%에서 3.69%로 0.18%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은행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더욱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대기업은 신용등급 1~3등급에, 중소기업은 4~6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력이 좋지 않을 경우 대출 받기는 더욱 힘들다.

문제는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대

기업과 다르게 대다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루트가 사실상 금융권 대출에 한정돼 그만큼 금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향후 국내 금리가 올라갈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부실이 발생하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까다로운 여신심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은행들의 항변이다.

실제 한은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면 2015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7.7%로 전년(127.0%)보다 19.3%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부실 대기업의 좌초로 된서리를 맞았던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만 '현미경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중소기업 K대표는 "중소기업들의 신용도가 대기업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에 피해를 준 것은 대부분 부실 대기업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리스크 관리를 핑계로 힘없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경기침체에 대기업 갑질 횡포, 최근에는 사드보복 피해와 금리인상 우려까지 더해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비율 때 우산빨기'식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재용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도내 시·군 순회 방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시·군지역을 순회 방문했다.

'소상공인 활력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최 회장은 20일 각 시·군의 주요 업체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21일은 전북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전북방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지역 정책간담회에는 시·군지회 대표자 등 50명이 참석해 '차기 정부 정책제안 설명 및 주요현안 협의', '3C운동 설명', '2017년 소상공인 선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오후 6시는 전주시 '산촌회관' 등을 둘러 3C운동 스키터 부착하고 업체 종사자 대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전주지역 상인봉사단 및

한국부인회 전북지부와 MOU를 체결했다.

최승재 회장은 "우리가 수 년간의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학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차기정부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700만 소상공인들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해 할 때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원정 전북도지회장은 "FTA가 본격 시행되는 마당에 농축수산 분야가 강한 전북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차기 정부는 농도인 전북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탄핵인용이 된 지금 국민 통합이 하루 속히 이뤄져 700만 소상공인이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국정에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개발공사, 농어촌 임대아파트 명칭 공모

전북개발공사는 농어촌 임대아파트에 어울리는 이름을 4월 2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득표수 2개안에 대해 모험해나가기축호텔 디럭스 숙박권을, 기타 3개안에 대해 스탠다드 숙박권을 지급한다.

한편,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농어촌 임대아파트는 전북도 삼라농정 정책에 발 맞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도농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직접 건설·공급함으로써 도·농간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단계사업(장수, 임실) 협약이 체결돼 장수군 100세대, 임실군 95세대 등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도 협약체결을 통해 지난 110세대, 무주군 50세대, 총 355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 또는 전북도(www.jonbuk.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중기청, 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도움 될 것"

전북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 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인택 청장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은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1588-7365)에 문의하면 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s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양파 노균병 방제 당부

농촌진흥청은 올해 양파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적기에 양파 노균병을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파 노균병은 크게 1차와 2차 노균병으로 구분하는데, 1차 노균병은 월동 전 모종을 기르는 동안이나 본밭에서 감염돼 이듬해 2월~3월에 발생하고, 2차 노균병은 4월에 주로 발생한다.

양파 노균병균은 이미 월동한 양파 잎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월동 뒤 노균병 방제용 살균제를 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차 노균병은 주로 4월 중·하순부터 잎에 얼룩병반이 발생해 피해를 주

때문에 월동기 이후 적기에 약제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파 노균병 포자는 2월~3월 5일 간의 평균 기온이 8°C~10°C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다가 4월 상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4월 상순 첫 방제를 시작으로 7일 간격으로 3회 방제 시 이병증률 1.3%, 포자발생률 0.01%, 이병엽률 8.4%로 나타났다. 이는 무방제 시 이병증률 31.3%, 포자발생률 17.4%, 이병엽률 51.6% 보다 효과적이었다.

약제 처리시기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4월 하순 이후 늦게 방제할 경우에는 방제 효과가 낮았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전북농업기술원, 상호협력 및 교류 관한 업무협약

전북농협은 21일 농협 상황실에서 전북농업기술원과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지원, 농업경영체 조직화, 교육, 신기술보급 건설링, 빅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및 경축순환 기술개발로 산업화 촉진, 직파재배 면적확대 및 영농지도

로 농업생산비 절감, 농기계은행사업 등을 통한 수도작 및 밭농업 농작업 활성화 등에 대해 농업기술원의 전문역량과 농협의 조직을 활용한 상호협력 및 교류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은 "농업생태화로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전북농촌을 만

드는데 전북농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작과 밭농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업전문가의 영농지도와 농업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경진원,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 동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청탁금지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에 합류했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돼 추진 중인 '원 테이블 원 플라워'는 사무실 책상 하단에 한 개의 꽃을 키우자는 운동으

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크게 위축된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진흥원 직원 책상을 비롯한 청사 곳곳에는 그윽한 향의 화초류가 곳곳에 놓여 아늑함을 느끼게 함은 물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